



대림 제4주일
주님 성탄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위기인가 기회인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요즘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입니다.

세균은 서식할 수 있는 환경과 먹이만 공급된다면 스스로 살아가며 번식합니다. 그래서 세균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균 자체를 공격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하거나 증식할 수 없고 반드시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멸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숙주와 바이러스를 분리 단절시키면 됩니다. 단순히 표현하자면 바이러스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기존에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갑니다.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라는 숙주에 기생하여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각종 악습과 병폐라는 바이러스를 굶겨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면 식의 표현이나 개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회복 내지 복귀가 아니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인들 안에서 당연시되어왔던 악습과 병폐들을 되돌아보고, 제거할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살려야 하는 것은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야말로 헌신처럼 구겨지고 내팽개쳐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제대로 주시하고, 이것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럴듯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위기일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은총이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정범 요한 신부 | 장평본당 주임



제 1 독 서 2사무 7,1-5.8ㄷ-12,14ㄱ,16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2 독 서 로마 16,25-27
복 음 루카 1,26-38

주일 진레

▶ 교구장 담화문 4~5면

대림절과 감옥의 나날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감옥 생활은 대림절과 많이 비슷하다네.”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가 친구였던 에버하르트 베트게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말이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1943년 4월에 체포된 본회퍼는 두 번의 대림절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왜 감옥 생활이 대림절과 닮았다고 생각했을까? 이어지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감옥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희망하며 이런저런 - 딱히 결과를 바라지 않는 - 일들을 하지.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은 오로지 밖에서만 열릴 수 있다네.” 자신의 손으로 감옥의 문을 열 수 없는 수인은 옥바깥에서 문을 열어 줄 선한 힘을 바라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다.



디트리히 본회퍼

다. 기다리는 것. 내 모든 힘을 다해 애쓰고 분투하며 달려왔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에 가로 막힐 때, 그저 다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선한 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끝까지 삶을 긍정하며 명랑함을 잃지 않았던 사형수 본회퍼의 대림이었고, 그 옛날 제국 로마의 권세 아래 무능력한 정권과 종교귀족들과 부자들의 기만과 수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히브리 민중들의 길고 간절한 대림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덕에 ‘격리’라는 단어를 유례없이 많이 사용하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이번 대림절, 본회퍼의 감옥 비유가 내겐 어쩐지 위로가 되어 마음에 와 닿는다.

기다림이 늘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면 좋으련만,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본회퍼는 나치 패망 불과 한 달 전에 결국 교수형에 처해져 서른여섯 짧은 생을 마감했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기대했던 히브리 민중들의 기다림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되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가난한 난민 부부의 몸을 통해 더러운 마구간으로 찾아 왔고, 돈도, 권력도, 번번한 교육 배경도 없는 떠돌이 설교자가 되어 살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본회퍼보다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하느님은 본회퍼의 기다림도 히브리 민중들의 기다림도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다른 지평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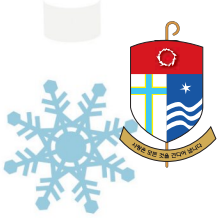
본회퍼의 안타까운 죽음은 정의로운 삶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일깨우는 선한 힘으로 남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을 거쳐 생명의 떡이 되어 지금도 우리 삶으로 부활하고 있다.

하느님의 응답은 인간의 지평에 머물러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느님의 원칙과 인간의 원칙이 계속해서 갈등과 긴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삶으로 이어가는 자세다. 칼케돈 공의회는 강생의 의미를 하느님과 인간이 연합하여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하지 않으시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인식할 수 있으며 어디에도 일치 때문에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는” 채로 존재한다고, 모호하기 그지없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하느님의 지평과 인간의 지평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간극을 인위적으로 메워 가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갈등과 긴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를 택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명확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마주하여 우리 지평이 확장되고 삶이 변화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나의 지평이 협소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지평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시기가 대림절이다. 크신 하느님 당신이 어느 누구의 시야도 닿을 수 없는 넓고 높은 지평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시야를 아우르며, 모든 이들의 고통과 설움을 안타까이 보듬으며, 모든 이를 살게 하는 숨을 불어 넣어 주시리라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대림절의 마음이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로 인해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의 선함이 일깨워져 당신의 선함과 하나 되리라 믿는 것이 대림절의 신앙이다. 당신의 자비로운 숨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이 내게 닿아 있듯 모두에게 닿아 있어 당신 안에서 차별 없이 함께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큰 축복 아닐까.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대림절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양일까. 본회퍼보다도 많은 겨울을 감옥에서 보낸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의 글이 떠오른다. 선생은 추운 겨울의 감옥살이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다. 여름의 감옥은 겨울보다 지내기 편할지 몰라도 무더위 속 서로 붙어 칼잠을 자야 한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를 증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라는 사실”은 선생에게 가장 끔찍스러운 현실이었다. 미움의 원인이 고의적인 소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바꾸어 말하면, 칼바람이 드세고 차가운 감옥의 바닥이 살을 에는 혹독하기 그지없는 겨울 감옥살이라 하더라도 함께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기다림은 전될 만하다. 옆 사람의 존재로 인해, 아니 옆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따라 기다림은 형벌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기다림을 형벌로 만드는 미움의 요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것이 차별과 미움을 조장하는 법이건, 특권을 재생산하는 거대 조직이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미워하는 게 당연해져 버린 세태이건, 아니면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게 하는 자기혐오이건, 두터운 안개처럼 내 지평을 가로막아 하느님의 지평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술한 미움들을 짚어 보고 조금씩 지워 나가는 연습을 하며 이번 대림절을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성탄 축일 아침엔 세상 모든 이들의 새 아침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자.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디트리히 본회퍼)



2020년 성탄



올해 2020년은 중국 우한(武漢, 무한)에서 시작된 맹독성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19 팬데믹 사태로 번져 온 지구촌이 수라장이 되어버린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잘 대처해 왔는데 겨울 들어 백신(VACCINE) 소식이 들리기가 무섭게 귀신들이 발악이나 하듯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악령을 꾸짖으시니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리며 쫓겨나는 마귀들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입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의 구유가 되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이 깊어지면서 성탄 개그가 등장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구유에 격리 조치되어 보름 후에나 성탄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주님 공현 대축일(옛날엔 1월 6일이었으나 지금은 1월 2일 ~ 8일 사이에 오는 주일)도 바이러스 천지인 낙타 오염으로 동방박사들이 코호트 격리되어 음압병동에서 고난을 겪은 다음 비실비실 경배하러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개그야말로 가짜 뉴스임에 틀림 없습니다.

의료인 청년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내 될 사람의 임신 소식을 알고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인 일, 믿음의 처녀 마리아가 신랑 따라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왔는데 출산은 임박하고 받아줄 방은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짐승 먹이통 구유에 누웠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캄캄한 자신들의 운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백신이야말로 부작용 제로의 완벽한 백신이기에 예수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코로나 감염이 완벽하게 보호되었고, 따라서 제아무리 맹위를 부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예수 아기는 따로 격리되지 않으신 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성탄 시리즈의 주요 멤버인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곁들일까 합니다. 어릴 땐 산타 할아버지보다는 그 선물에





침 흘리고 살았는데, 일찍부터 담배를 피웠던 나에게는 크면서 또 다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는 꼭 굴뚝을 통해 오시는가? 나는 최근에야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담배 냄새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데 담배를 즐겨 피우시는 산타로서는 담배 냄새가 아이들에게 역겨울 것 같아서 굴뚝에서 나는 연기 냄새로 살짝 위장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소외된 자를 위해 오셨다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된 자는 담배 피우는 영감님들인 것 같아서입니다. 집에서는 할머니에게 매일 구박 당하고 성당에 와서도 이 추운 날 저 바깥 외진 구석에 숨어서 피워야만 하는 가련하고 소외된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견진을 하러 본당을 가게 될 때 미사 후 단체 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짧은 시간 동안 성당 뜰 외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 피우시는 할아버지께 얼른 다가가 담배 한 대 주시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마치 일제시대 만주 허허벌판에서 독립군을 만난 양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사는 유일한 주교인 저는 저의 약점을 훌륭한 복음 정신(소외된 자를 위함)으로 위장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된 분들 혹은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부끄러움을 안고 사실 겁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이렇듯 부끄럽게 변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지박약한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겨내지 못하는 오랜 습성을 인정하고 믿음이 강한 분들보다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아무도 스스로 자기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 모습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가없이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인간의 처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탄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천주교 마산교구 신앙공동체는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가 갈수록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로 꽉 차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덜 훌륭한 사람, 덜 똑똑하고, 그저 삶의 일선에서 허덕이는 분들을, 하느님께서 예수 성탄을 통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따듯이 감싸고 어루만지며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2020년 성탄절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일상의 기적은 어디 있을까-송상옥의 『흑색 그리스도』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송상옥의 『흑색 그리스도』는 종교색 짙은 제목과는 달리 자신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묘사한 작품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고향의 처녀를 겁탈하고, 버렸다가, 어떤 계기로 돌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렇게 진부하고 소박한 내용으로 집약되지 않는, 결코 만만하게 처리될 수 없는 많은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

바다가 있는 고향에서 주인공은 소년기를 보낸다. 그는 하늘로 솟아오르고 싶었고, 날고 싶었다.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기 전, 그는 우연히 만난 여학생 '영희'를 겁탈하고 아이를 잉태시킨다. 그러고는 방학이 되어도 고향을 찾지 않고 외면했다.

그는 이런저런 무의미한 여성 편력을 이어가고, 별다른 마음 없이 향순이와 애인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는 영희나, 향순이나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여인들이 죽어 버리기를 바라고, 절망에 빠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고는 한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꿈꾼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 같은 기적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이고, 결국 그는 절망에 빠져 기적을 부인한다.

“기적은 없어.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 같은 건 아무 데도 없어. 공중에 떠 있는 새까만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야.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새까만 그리스도가...”

어느 날, 그렇게 간절하게 죽어 버리기를 바랐던 여인들 중 건넌방 아가씨 경자가 음독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마음이 바뀐다. 그는 거짓 사랑에 지친 향순이나 자신이 버린 영희처럼 고통에 찬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영희를 찾아 고향으로 내려간다.

『흑색 그리스도』의 그가 꿈꾸던 것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듯 한 기적은 없을 수 있다. 어느 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고,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은 시험에 탈락 합격하거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기적 말이다. 하지만 『흑색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순간에 의해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는 있다. 오랜 미움이 화해의 눈물로 바뀌고, 방황 끝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또한 기적이 아닐까?

‘공중에 떠 있는 새까만 그리스도’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기적은 의외로 많다. 우리 마음속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성탄의 촛불 하나가 겨울을 따뜻하게 변신시키듯이, 사소한 일상 하나에서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를 꿈꾸어 본다.



교구장 동정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일시: 12월 25일(금)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본당

교3 피정

일시: 2021년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1년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서기담당 010·5911·8792

기 타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6일(월)~2021년 2월 10일(수)

(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1년 1월 7일(목) 09:00~11일(월) 18:00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선발인원은 홈페이지(ipsi.cup.ac.kr) 참조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입학관리부 김종진(모세) 051·510·0702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DCU스마트인재장학』 전원 장학혜택

원서접수: 2021년 1월 7일(목)~11일(월)

입학정원: 2,862명

문의: 053·850·2580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가좌동본당 제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영수(그레고리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권인수(클라라)

총무분과위원장: 박웅록(요셉)

복음화분과위원장: 박경자(루치아)

기획·재정분과위원장: 강수동(대건 안드레아)

전례분과위원장: 조재희(가타리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경숙(도미질라)

구역분과위원장: 장경아(안나)

시설분과위원장: 최연명(벨라도)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조민국(비오)

청소년분과위원장: 최진호(요한)

홍보분과위원장: 손복희(안젤라)

노인분과위원장(남성): 유길용(다미아노)

노인분과위원장(여성): 류금자(가타리나)

의령본당 제2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택순(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신영도(루카)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강봉두(프란치스코)

총무분과위원장: 하은숙(크리스티나)

기획분과위원장: 오경주(라파엘라)

교육분과위원장: 박미영(테클라)

전례분과위원장: 정태준(베드로)

선교분과위원장: 정영숙(베로니카)

구역분과위원장: 정설애(브리짓다)

복지분과위원장: 함정식(프란치스코)

청소년분과위원장: 송철구(레오)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옥근선(클라라)

시설분과위원장: 신판철(요한)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12월 23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수도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미르코 투어 010-5150-2625

마
산

에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에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자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한국 성지 167완주 접수 중

21년 1월 25~28일 부산·마산교구 4일

2월 22~25일 수원·청주교구 4일

3월 22~25일 서울대교구 4일

※착한비용 제주성지 순환버스 매일출발

미카엘여행사 010.5034.8052

40년 전통 <팔보효소>

PALBO 효소단식 · 해독요법

▶ 미·중국 수출 ▶ 부모님 건강 선물

▶ 간헐적단식 ▶ 면역력증강 ▶ 효소피정

▶ 지리산 산청 발효·OEM 전문·소화효소

www.palbo.co.kr ☎1600-0830



기다림

이준호 라파엘 수필가/ 가톨릭 문인회

사람의 흔적과 머무른 자리가 애잔할 때가 있다. 방금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식지 않은 온기가 머무르는 듯 사라진다. 손때 묻은 수첩과 머그컵이며 필기구가 마지막이 되는-그렇지 않겠지만-괜한 상상을 한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실로 돌아온다. 위령 성월 동안 죽음을 너무 떠올렸나 싶다.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살고 그 순간들만을 간직하리라 마음먹는다. 그새 겨울눈처럼 탁자에 먼지가 쌓여 있다. 긴 기다림 속에서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둔감해진다. 쌓인 먼지를 그래서 떨어낸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는 지인이 있었다. 그의 안부를 자주 물을 수가 없었다.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하기만 할 뿐 동병상련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름만 두문불출하면 된다고 하더니, 가족의 추가 확진으로 2주가 더 연장되었다. 자가격리를 삼칠일째 하고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기까지 했다.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듯 가라앉았던 처음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돌아보았노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 달그락거리는 소리 가운데, 그는 주방의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아내는 아직 의료원에 있다고 했다. 수염이 얼굴에 가득 나 있을 것 같은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끝날 것 같던 사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일 년의 끝자락은 보이기 시작한다. 온라인으로 가계부를 새로 샀다. 잉크 냄새 물씬 나는 새 가계부를 넘겨보았지만 무게감만 드리워진다. 그래도 몇 년째 적어온 숫자들은 지나온 세월의 징검다리처럼 보인다. 망각으로 늘 가라앉는 일상에서, 꼬박꼬박 적어 온 숫자는 나의 기억을 돕고 있다. 가벼운 웃음이 배어 나온다. 코로나 덕분에 통장 잔고가 바닥나지 않았다. 겨울의 맑은 공기를 맡으며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올라온다. 다시 얇은 웃음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미사를 매일 보며 내년 성탄을 다시 기다리게 된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정 미사 다녀오는 길에 사 왔던 굵직하고 하얀 엿을 아직도 기억한다. 성탄 전야의 연극 대사도 애뜻하게 다시 떠올리곤 한다. 기다림의 감동은 갈수록 얇어진다. 대림 시기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였던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빨래를 걷듯 기다림을 거둬들이리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다. 햇살 가득한 탁자에 앉아 새해가 시작된 전례력을 천천히 넘겨본다.